

광주 지역 출판사들이 여름을 맞아 잇따라 계간 문예지를 펴냈다. 문학과 인생, 시대와 지역을 가로지르는 여름호 특집들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감정과 언어, 예술적 상상력을 되새기며 독자들과 호흡한다.

‘문학춘추’...호남문학, 추모 특집 수록

‘문학들’...계엄 이후 정치·주체성 조명

‘사이편’...시인 탄생 100주년 기획 등



광주 지역 문예지 여름호 잇따라 발간

1. 먼저 광주·전남 최초의 종합문예지 ‘문학춘추’(통권 131호)는 문학과 인생의 궤적을 다룬 특집들로 꾸러졌다.

김대현 한국문인협회 희곡분과 회장의 문학 여정 인터뷰를 시작으로, 연재 기획 ‘왜 문향 호남인가’의 마지막 회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국면마다 등장한 호남 문학의 지력을 짚었다.

수필가 장정식을 추모하는 특집도 실렸다. 동료 문인들의 회고를 통해 고인의 인간성과 수필 세계를 돌아보는 한편, 신병은·이재설·조수일·하순명 시인을 비롯한 시·아동문학·수필·평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도 함께 수록돼 문예지 본연의 품성함을 더했다. 김민정·김시욱 시인이 당선된 제129회 신인작품상 수상작도 실려 있다.

2. 계간 ‘문학들’(통권 80호)은 ‘계엄 이후의 문학’을 주제로, 2024년 12·3비상계엄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성찰한다.

서동진은 계엄과 현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를 돌아보며,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 사이에서 반복돼온 숨바꼭질 종식을 가능케 할 문학적 사유를 펼친다. 권갑현영은 2008년 촛불집회부터 2024년 탄핵광장에 이르기까지 여성 주체의 상징 전환과 위치 변화에 주목하며, 운동의 물리적 장소에서 감각의 전환을 이끌어낸 ‘응원봉’의 의미와 목소리의 다양성을 다룬다.

지역성과 연계한 지면도 눈에 띈다. ‘장소들’ 코너에서는 송기영 작가가 광주의 ‘지역책방’을 중심으로, 작가들과 장소들을 촘촘히 잇는 이야기를 풀어냈

고, ‘뉴광주리뷰’에서는 창간 20주년을 맞은 ‘문학들’에 대한 김주선 비평가의 회고가 실렸다.

3. 시 전문 계간지 ‘사이편’(통권 37호)은 ‘2025 시인 탄생 100주년’ 특집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거장 김규동, 박용래, 송옥, 홍운숙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각 시인들의 대표작과 함께 권성훈, 고형진, 이승하, 김태경 평론가가 해설을 맡아 이들의 미학과 사유를 현대의 시선으로 다시 읽는다.

‘사이편토크’에서는 강은교 시인과 신진 시인이 부산에서 마주 앉아 시적 대화를 나누는 기록이 담겼다.

신작소시집을 발표한 박진형·성향숙 시인, 신작시를 실은 장석주·류인서·고영

민 등 30여 명의 시인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펼쳤으며, 올해 상반기 ‘사이편신인상’ 수상자 정형, 최웅식의 첫 작품도 함께 소개됐다.

이 밖에도 수필과 시평, 철학적 사유를 담은 연재물이 다채롭게 구성돼 시와 인문학의 교차 지점을 탐색한다.

시인 장인수는 서평을 통해 박산하·배옥주 시집을 정독하며 언어의 내면을 탐사했고, 강은교의 편지글 ‘범에서 보내는 문학편지’, 홍일표의 인물에세이, 김종희의 인문 산책도 독자들의 문학적 소통을 이어간다.

이번 여름호들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시대와 지역, 문학을 사유하며 독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슬픔을 이긴 기쁨으로=노유섭 저자
노유섭 시인의 12번째 시집 ‘슬픔을 이긴 기쁨으로’가 발간됐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쓰인 작품 중 85편을 골라 엮어낸 시집이다. 서정성, 애국과 통일, 환경과 사유성, 시대성과 공동체 의식, 개인과 가족, 존재성과 종교성 등 주제에 따라 총 5부로 구성됐다. 김종희 문학평론가는 “시집에서는 사소한 것에 대한 따뜻함, 세월의 무게와 갈 길, 공동체적 인식의 소중함, 시대와 개인의 상관성, 존재론적 성찰의 시 등을 목도할 수 있다”며 “그의 시는 직접적인 발설 없이도 진중한 의미를 산출하며, 동시에 부드럽고 감성적인 시 읽기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준다”고 평했다.

/인간과문학사·1만2천원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이슬아 저자
한 달 구독료 만 원으로 독자에게 매일 직접 글을 배달하는 ‘일간 이슬아’. 한국문학의 판도를 뒤엎아버리고 ‘작가-독자 직거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이슬아 작가가 이메일로 인생을 바꾸는 법에 대해 말한다. 이토록 자신감 있는 창작자이자 당당한 일꾼의 선언에는 일을 받고, 거절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는 판돈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때론 잘못된 일 앞에서는 예술적으로 무릎 꿇으며 사과하고, 수많은 타인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며 끝내 ‘새로운 세계’를 이뤄내는 이슬아의 일과 삶의 기술이 총망라돼 있다.

/이야기정수·1만7천800원



▲창을 여는 마음=안리타 저자
‘창을 여는 마음’은 혼자 걷던 사유의 길이 타인을 향한 마음의 창으로 변해가는 산책 기록이다. 혼자서 침묵 속에서 시작된 걷기는 계절의 결을 따라 깊어지고, 어느 순간 세계를 타인과 함께 바라보는 응시로 이어진다. 이 책은 존재가 존재이기 위해선 누군가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깨달음 아래, 함께의 의미를 향해 다가가는 연결의 여정이다. 저무는 오후의 햇살, 떨어지는 잎들, 나무 사이로 비치는 겨울의 빛, 깊은 풍경 속에서 작가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묻는다. /홀로씨의 테이블·1만5천원



▲바위소년=김남권 글, 이혜원 그림
외딴 화전민촌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소년 ‘반달이’. 반달이는 매일같이 일하러 나간 할머니를 온종일 기다린다. 친구라고는 강아지 ‘덕구’밖에 없다.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지만 언젠가 돌아올 엄마를 기다린다. 어느 날 할머니를 기다리는 반달이 앞에 하얀 산토끼 한 마리가 나타난다. 반달이는 그토록 뒤를 따라 평소 아무서워 가지 않았던 개울 건너 숲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 외로움과 그리움, 기다림의 아이 반달이의 내면과 성장을 섬세하게 그린 이 그림책은 기억의 한계를 넘어서 희망과 소망, 간절한 마음을 일깨워 준다.

/고래책방·1만4천원

호남 대표 지성 3인 문집, 오늘의 언어로 되살리다

한국학호남진흥원, ‘하서전집’ ‘눌재집’ ‘석천시집’ 완역 출간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이 조선시대 호남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지성인인 하서(河西) 김인후, 눌재(訥齋) 박상, 석천(石川) 임억령의 주요 저작을 완역한 국역 총서를 출간했다.

이번에 선보인 책은 각각 ‘하서전집’, ‘눌재집’, ‘석천시집’으로, 고전 한문 원전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일반 대중에게도 세 인물의 사상과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진흥원은 이번 출간을 통해 호남 정신의 뿌리를 이룬 세 문인의 사유와 문학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리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총서 3종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밀한 번역과 상세한 주석을 더함으로써 학술적 깊이를 확보했다. 전문 연구자는 물론,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자 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유용한 고전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하서전집’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이자 호남 유학의 중심 인물로 평가받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시문, 상소, 서간 등을 총망라한 전집이다. 그의 학문적 성취는 물론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선비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판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천한 눌재 박상 선생의 시와 산문을 집대성한 문집이다.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통찰과 인간적인 고뇌가 녹아 있는 그의 글은 공직자의 자세는 물론,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석천시집’은 식영정을 중심으로 호남 가사문학의 융성에 기여한 석천 임억령 선생의

호남 정신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손꼽힌다.

‘눌재집’은 강직한 성품으로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천한 눌재 박상 선생의 시와 산문을 집대성한 문집이다.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통찰과 인간적인 고뇌가 녹아 있는 그의 글은 공직자의 자세는 물론,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석천시집’은 식영정을 중심으로 호남 가사문학의 융성에 기여한 석천 임억령 선생의

시 세계를 담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서정성과 삶에 깊이 관조한 시편들은 조선 시문학사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며, 한국 문학의 풍요로움을 보여준다.

진흥원은 이번 국역 총서가 호남 고전에 대한 학술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후속 연구자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현대 언어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호남 인문학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영기 원장은 “하서, 눌재, 석천 세 분의 높은 정신과 아름다운 문학이 시대를 넘어 깊은 울림을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호남의 숨겨진 기록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대화함으로써 한국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